

# 1988年 新年賀禮會 盛了

## 150餘 人士 參 …相互 親睦다져

本會는 지난 1月 12日 오후 6時 全國經濟人聯合會 난초홀에서 本會 會員社代表, 관계 機關長 및 言論界 人士 등 1백 50여명 이 參席한 가운데 88年 新年賀禮會를 가졌다.

이날 賀禮會에는 車秀明특허청장을 비롯하여 洪性源청와대 비서관·朴弘植특허청 차장·金生基영진약품공업(주)회장·金採謙 쌍용양회공업(주) 사장·全應璠삼양식품공업(주)사장·田峻恒 대한변리사회 회장·金昌達한국기술개발(주)사장·河榮哲(주)경농사장·李宇鎔동화약품(주)사장·洪秉圭(주)유한양행 사장·尹能善경총부회장·金忠世고려화학(주)사장·鄭必模대일화학공업(주)사장·申錫均발명학회 회장 그리고 本會 李泰燮상근부회장 등 1백 50여 人士들이 參席하여 相互 親睦을 다졌다.

이날 本會 具滋璟회장은 金生基 本會副會長(영진약품공업(주)회장)이 代讀한 賀禮人事를 통해 『지난 한해는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의 知的所有權 開放壓力과 工業所有權의 國際化 추세에 副應하기 위한 物質特許制度의 導入 등 諸般 어려운

與件속에서도 企業과 發明人 여러분들이 新技術開發을 위한 投資와 研究活動을 꾸준히 展開하여 對外 競爭力을 確保함으로써 扎实的 經濟成長을 이룩하였음은 물론 發明富國의 基盤을 다진 한해였다』고 전제하고, 『今年은 정부의 特別한 豫算配慮로 發明獎勵館의 擴大移轉과 學生發明活動支援 등 획기적인 發明振興事業을 展開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本會 事業活性化에 고무적인 한해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具滋璟회장은 또 『美國 등 先進諸國으로부터 自國의 産業保護와 貿易赤字를 줄이기 위한 각종 特許侵害 訴訟과 추가적인 開放壓力 등 어려운 與件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企業과 發明人 여러분의 技術開發力 提高와 特許管理를 위한 事前 대비책을 마련하여 충격을 극소화 하도록 努力해야겠

다』고 말하고, 『이에 本會는 工業所有權制度 定着과 特許管理의 效率性을 增大시키고 汎國民的인 發明風土造成을 위한 事業을 적극적으로 推進할 수 있도록 恣신의 努力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는 물론 企業과 發明人들의 積極적인 協調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車秀明 特許廳長도 人事를 통해 『許特廳은 發明振興을 통한 企業의 技術開發을 積極 뒷받침하기 위해 ▲審査審判官의 資質向上 및 擴充 ▲知的所有權 開放에 따른 對策樹立 ▲發明振興事業 積極 推進 ▲工業所有權 使用秩序 確立 ▲特許行政發展基盤 擴充 등에 力點을 두고 事業을 펼쳐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2時間동안 부페각데일식으로 베풀어진 賀禮會는 參席人士들의 오가는 歡談속에 親睦이 두터워지는 機會가 되기도했다. <吳>

1년앞선 특허관리 10년앞선 선진기업

발명하는 국민되어 복지국가 건설하자